

풍요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

문체부, VR·AR 콘텐츠 등 '5대 핵심기술' 선정 집중 투자

2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성공 배경은 바람에 흩날리는 털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특수효과(VFX) 기술이 있었다. 또 대금, 아쟁, 가야금 등 23종 악기의 소리를 추출해 개발된 가상 국악악기음원 저장소(라이브러리)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IDOL)>에서 한국의 선율을 구현했다.

전국 390개 초등학교에서는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을 설치해 대형 체육관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축구, 양궁, 야구 등 스포츠를 즐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가상현실 동화구연실은 어린이들이 화면에 투영된 자신의 영상과 함께 동화를 실감나게 체험하게 한다.

이들 문체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과제와 성과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문화산업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응용기술의 특성을 살려 높은 양적·질적 성과를 창출해 왔다.

문체부 연구개발로 도출된 특허 건수는 지난해 10억 원당 5.3건으로 국가 연구개발 평균의 약 2배이며, 사업화 건수는 10억 원당 3.9건으로 국가 연구개발 평균의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2017년 조사한 집계다.

다만, 아직 한국 문화기술 수준은 2016년 미국 대비 82%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분야는 기업이 영세하고 대외변수에 취약해 민간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문화 연구개발 예산도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 대비 0.35% 수준(19년 국가 연구개발 20조 5000억 원 중 727억 원)에 불과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앞으로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저작권·관광 분야에서 각광받을 5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풍요롭고 다채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래세대를 열어갈 '5대 핵심기술'을 선정,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순에 잡히는 응용기술'인 문화기술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문화서비스 전달 체계를 정비한다.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내 이용자와 쌍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추천(큐레이션) 시스템을 보급하고, 콘텐츠 이용 시 보행 부주의, 공연 안전사고, 관광지 미야 발생 등의 위험 저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재외 한국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체험관을 조성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늘날에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3·4차원 인쇄(3D·



문화상품 전달 체계에 따른 핵심기술 개념도.

4D 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문화상품의 창작·제작·유통·향유 전 단계에 걸쳐 대거 투입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 문화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상의 행복을 실현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체부가 집중 지원할 5대 핵심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기획·창작 지원 기술'은 출판·영화·드라마·공연·가상현실 영상 등의 창작자가 소재를 발굴하고 이야기 구조를 설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협업 저작도구,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의미한다.

둘째, '지능형 콘텐츠 제작 기술'은 현실의 사람·공간·사물 등을 저비용·고품질로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조명·재질을 실감나게 구현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른 유사·반복 공정을 절감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셋째, '참여형 문화공간 기술'은 사용자의 감성특성을 추출해 문화 체험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게임 이용자의 성향을 학습해 스스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임엔진 기술이나 개인의 행동·동작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을 설계하는 기술이 포함된다.

넷째, '문화체험 격차 해소 기술'은 신체장애나 연령과 무관하게 스포츠, 웹툰 창작, 영화 감상, 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하는 기술로, 사회적 약자의 신체능력을 높이고 사회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공정환 콘텐츠 이용 기술'은 불법복제 콘텐츠를 단속·식별하고 차단하며 유출원을 추적하는 기술과 함께, 저작권 위반 여부를 검색하고 대체 공유저작물을 추천하는 기술 등을 포함한다.

문체부는 자체적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대형 원천·기반기술 개발에 문화산업계의 수요를 전달하고 공동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복원에 필요한 스캔·인쇄(프린팅) 및 주사기 기술, 스포츠 선수 가상훈련에 필요한 감지기(센서) 기술, 공간정보 기반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좋은 쓰임새를 찾을 수 있도록 부처·기관 간 연구개발(R&D) 과제연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성과사례 전시, 투자유치 박람회 등도 추진한다.

특히 마음껏 꿈을 키우고 전문성 있는 정부 기관이 든든하게 지원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 문화기술 인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장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기술에 특화된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른 연차·단계별 순차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위한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1부처 1전문기관' 범정부 정책거조에 맞추어 현재 4개로 분산된 문체부 소속 연구기관 전문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 예술,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등, 문체부 연구개발(R&D)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이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17년 11월~18년 7월), 관계부처 협의(18년 7월~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18년 10월 31일) 및 심의회의 의결(18년 12월 31일)을 거쳐 마련됐다.

/뉴시스

"한옥마을 찾은 관광객이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전주문화재단, '우리동네서학동 이야기' 책 발간

(재)전주문화재단은 서학동 마을을 소개하는 교과서 '두루미가 살았던 우리동네 서학동 이야기'란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인 '판소리 다섯마당 예술마을 만들기'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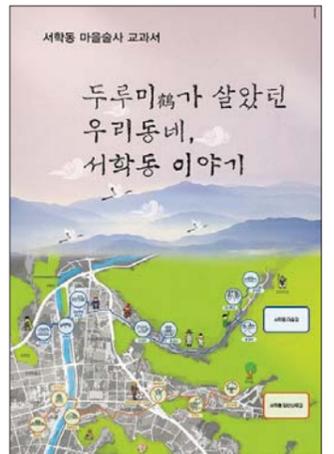
내용을 살펴보면 ▲서학동 미리 보기 ▲서학동 느리게 걷기 ▲서학동 동네 밥상 레시피 등 총 9종 47개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학동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소개했다.

서학동 느리게 걷기에는 서학동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서학동은 어디에 있을까? 서학동의 조형물 등에 대한 소개로 꾸며졌다.

서학동 느리게 걷기는 서서학동·동서학동·대성동·색장동·서학동 산책이 담겨있으며, 서학동 동네 밥상 레시피는 현미밥·콩나물국·고동어김치찌개·배추김치 등 15개의 레시피가 수록돼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동서학동·서서학동 주민센터에 배포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재단 정정숙 대표이사는 "문화 재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국립무형유산원을 거쳐 서학동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방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일상적 평이함 넘어선 언어 이상의 언어... 강지음 개인전

16일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16일부터 21일까지 '강지음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인하대학교 미술과 및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으며, 현재는 단체전, 교류전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북 김제 작업실에서 작업 활동 중이다.

작가의 그림은 언어다. 일상적 평이함을 넘어서서 생각과 함축미를 지닌 언어 이상의 언어다. 인간의 언어는 묘사의 남용으로 인해 본질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만, 작가의 언어는 기식과 꾸밈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본질의 냉정함을 소통의 방식으로 삼는다. 그림의 온도들은 기만을 들여다보는 순간 언어로 다시 조립된다.

인간 정신의 주파수를 여러 갈래로 펼쳐지게 하는 힘을 가진 작가의 그림은 공장 한구석에 버려진 구멍 뚫린 쇠조각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가운 메탈 느낌 속에서 사람의 색조와 꿈틀거림이 엿보인다. 작품 속 눈을 땔 수 없는 이 검은 구멍들은



순도 높은 절망처럼 자칫 거북해 보이기도 하지만, 미련이 깊게 담긴 홀이다. 결국 우리네 삶이란 절망처럼 보이는 어두운 너머 어딘가에 갈급한 위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의 세계 앞에서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 자유를 채비하게 된다.

작가는 우리의 가려진 마음을 차갑고 건조한 생각의 언어로 담담하게 드러낸다. 그림은 송고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간단명료하면서도 충분히 보여준다. 어둡고 적막한 여러 홀 속에서 자유를 획득한 내면의 진실이 절망이 아닌 우주로 향한 생명의 통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 속에 깃든 상처의 힘이다.

/김진성 기자